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	--	------	--	--	--	--	---	--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여 도덕성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 ② 백성들이 자연에 순응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회이다.
- ③ 오륜(五倫)이 행해져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는 사회이다.
- ④ 상벌(賞罰)로써 백성을 다스려 부국강병이 실현된 사회이다.
- ⑤ 연기(緣起)를 자각하여 사회적 차별을 극복한 평등한 사회이다.

2. (가)의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무릇 사람의 본성은 군자와 소인이 동일하다. 그러나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켜 예의를 생기게 했기 때문이다.</p> <p>을: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며, 마음을 놓아 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예는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위적 규범이다.
 - ㄴ. B: 사덕(四德)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이다.
 - ㄷ. B: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교화가 필요하다.
 - ㄹ. C: 사회적 혼란의 극복을 위해 본성의 확충이 요구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쏟아져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 (중략) ... 세간에 일어나는 것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무(無)에 대한 집착은 없을 것이고, 세간에 소멸하는 것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유(有)에 대한 집착 또한 없을 것이다.

- <보기>
- ㄱ.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쾌락이나 고행의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 ㄷ. 애욕(愛慾)과 무명(無明)을 추구하여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 ㄹ. 오온(五蘊)이 불변함을 자각하여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의 입장에서 <사레>의 ㉠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어떤 행위가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를 따르려는 의지, 즉 선의지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어야 한다.

<사 레>

작가 A는 20만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나고 받은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A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기자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었다.

- ① 사회적 유용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② 주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이다.
- ③ 공감을 통해 타인에게 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이다.
- ④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⑤ 의무의식에 따라 도덕 법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이다.

5.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위는 품성을 만드는 지배적인 도구이다. 성격은 습관적 행위의 모자람이나 지나침으로 인해 파괴된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들면 무모한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을 탐닉하면 무절제한 사람이 되고 즐거움을 전부 회피하면 목석같은 사람이 된다.

- ① 참된 진리는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 ② 도덕적 삶은 반드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③ 지성적 덕은 좋은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6. 한국 사자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칠정(七情)이 이(理)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하여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四端)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칠정과 다르지 않다. 다만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와 기가 두 갈래 길로 나오는 격이다.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동(動)하여 정(情)이 뒀에 발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 ① 갑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되어 있는 선한 본성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사단을 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드러난 감정이라고 본다.
- ③ 을은 기질을 바로잡아 이의 본연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단과 칠정을 동일한 연원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욕을 버리고 천리인 사덕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헬레니즘 시대 사자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근원이자 목표이다. 진정한 쾌락이란 육체적 고통도 마음의 불안도 없는 정신적인 평온함을 의미한다.

을: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며, ㉡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을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 이성의 힘으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야 하며, ㉣ 신의 법칙에 따르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바람직한 삶을 위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8. 다음 동양 사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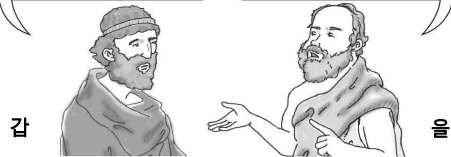
무릇 진정한 대도(大道)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진정한 변론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仁)한 이는 그 표현이 무심하고, 진정으로 청렴한 이는 물아(物我)를 잊어 하찮은 검순을 표시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란 모르는 데에 그치고 마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지혜가 된다.

- ①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인의(仁義)의 덕을 확충해야 한다.
- ② 주관적 감각이나 사고에 의존하여 도를 깨우쳐 나가야 한다.
- ③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是非)와 선악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 ④ 천리(天理)를 근거로 삼아 세속적인 이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

9. 고대 서양 사자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각자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을: 참된 앎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덕은 참된 앞에서 나오고, 악덕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 ① 갑은 이성을 통해 참된 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보편타당한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행복한 삶을 위해 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현실의 도덕 문제보다 만물의 근원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10. 한국 사자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부처님의 마음인 일원상(一圓相)을 모시면서, 안으로 정신문명을 추진하여 도학(道學)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추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 영육쌍전(靈肉雙全)하면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을: 선천(先天)에는 상극지리(相剋之理)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여 원한이 맺히고 쌓여 세상에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이제 천지도수(天地度數)를 뜯어고치고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백성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고치리라.

- ① 갑은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 ② 갑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을은 사회 변혁을 위해 도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을은 무속 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갑, 을은 현세의 삶보다 내세에서의 구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11.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 있어서, 아니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공자의 사상. ○○사상 (B):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을 의미하는 맹자의 가르침.</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이성을 통해 감정과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다.
- ②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각 계층이 합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 ④ 타인의 행복과 불행이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한다.
- 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에 대해 절대적으로 평등한 상태이다.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다.

을: 인간의 마음은 사물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사하는 깨끗하고 고른 거울이 아니다. 오히려 미신과 환영으로 가득 찬 요술 거울이다. 그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우상(偶像)을 타파해야 한다.

— <보 기> —

- ㄱ. 갑은 이성을 통해 명백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은 귀납적 탐구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ㄷ.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ㄹ. 을은 참된 지식의 발견을 위해 방법적 회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14]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性)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온갖 도리를 갖추었다. ... (중략) ... 어떻게 저 네 가지 덕이 발견되는가? 측은지심에 근거하여 인(仁)이 있음을 알고, 수오지심에 근거하여 의(義)가 있음을 안다.

을: 마음의 본체는 본성[性]이며, 본성은 곧 이(理)이다.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그 전체를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그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 하고, 그 조리(條理)로 말하면 이라 한다.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이나 이치도 없다.
- ② 갑: 인간만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
- ③ 을: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면 성인이 된다.
- ④ 을: 인욕을 제거하고 양지(良知)를 발휘해야 한다.
- ⑤ 갑, 을: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 도덕적 실천보다 우선한다.

14. 다음 한국 사상가가 갑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늘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어 그 선(善)을 욕구하면 선을 하고, 그 악(惡)을 욕구하면 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권능이 나에게 있어 짐승과는 같지 않으므로, 선을 행하면 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내 죄(罪)가 된다.

— <보 기> —

- ㄱ. 사덕은 도덕적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ㄴ. 성(性)은 이(理)가 아니라 기호(嗜好)임을 모르고 있다.
- ㄷ. 사욕을 제거하여 선한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ㄹ. 사단은 본성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 <보 기> —

- ㄱ.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인가?
- ㄴ. 신은 자연 그 자체로서 무한(無限)한 존재인가?
- ㄷ. 신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는가?
- ㄹ. 신을 인식하기 위해 이성적 관조가 반드시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대화의 스승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인(仁)이 무엇입니까?
 스승: 자기를 이겨 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자: 그러면 인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스승: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게 해야 한다.

-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② 허심(虛心)으로 도덕적인 규범을 버리도록 통치해야 한다.
- ③ 예악(禮樂)을 바로 세워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④ 법률과 술수를 정치의 요체로 삼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 ⑤ 겸애(兼愛)를 실천하여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7. 갑,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지극히 옳바른[正]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와 윤리의 정신을 넓혀 나갈 뿐이다. 우리의 것이 융성하면 저들의 사악한[邪] 것이 사라질 것이요, 이쪽의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
 을: 나의 도(道)는 한울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다. 저마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교화가 이루어진다.

- ① 후천개벽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 ② 유교적 가치 체계와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③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④ 서양 문물 수용을 통해 이용후생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는가?

18.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만일 어떤 것이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원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神)이라고 본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	√		√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	√		√		√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	√
신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을: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나)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하는가?
- ② A: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자의 선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가?
- ③ B: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 ④ B: 개인적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⑤ C: 정신적인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더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20.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성품이 들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없는 자리는 모든 법(法)의 실상이 허공과는 달라 스스로 아는 성품이니 이를 마음[心]이라고 한다.
 을: 먼저 깨치고 나중에 수행한다는 것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그것이 햇빛을 받아 녹아야 물이 되는 것처럼 범부(凡夫)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법력(法力)으로써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

- ① 갑은 중생 구제보다 개인의 해탈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교종과 선종의 오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신의 본성을 깨쳤더라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경전과 교리의 공부만으로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점진적인 수행으로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